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반도체, 미국·중국】 미국, 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

【노동, EU】 EU 「강제노동 금지법」 추진

【중요물자, 일본】 日, 반도체·희토류 등 중요 물자 공급망 대대적 조사

【무역, 독일·중국】 독일, 중국 겨냥한 새로운 무역정책 추진

【가스, 러시아·중국】 러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 중국석유공사와 루블·위안화 결제 합의

【신재생, EU】 유럽의회,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45%로 상향

【에너지, EU】 EU, 에너지기업으로부터 횡재세 195조원 거둬 러시아發 에너지 위기 대응

【광물, 인니】 인도네시아, 2023년부터 보크 사이트 수출금지 예정



GVC 뉴스 더하기

- ① 美 '바이오 제조 혁신 이니셔티브'로 자국 공급망 강화
- ②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 ③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요약)



GVC 기초상식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지원제도



GVC 돌보기

주요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례 (EU, 미국편)



GVC 전문가

美 CHIPS Act 주요 내용과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 - 미국반도체산업협회 John Neuffer 회장 인터뷰



GVC 소식통

- ①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사업 및 세미나 안내
- ② 공급망 현안 품목 해외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공고 - 칠레 리튬활용 부가가치제품생산



더 찾아보기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각료선언문 중 공급망 관련 사항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 【반도체, 미국·중국】 미국,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 美 상무부는 중국군이 반도체를 군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안보상 명목으로 對中 수출제한 관련 법안 제정 추진 중
 - 미국은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화를 통해 개별 기업에서 산업 전반으로 對中 반도체 수출 제한을 확대할 방침으로, 우회로까지 차단하여 기술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 美 상무부가 지정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후속 제품인 GPU를 비롯해 시용 반도체 부문 관련 업체들도 규제 대상
 - * 이전까지 미국은 일부 기업의 특정 제품 수출만 통제해 왔으며 '22.7월 반도체 장비업체 3개社에 14nm 이상급의 반도체 생산용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허가받도록 조치한 바 있음
- 中 외교부는 9.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과학기술 우위를 이용해 신흥 시장과 개도국을 억제하고 탄압하려 하고 있다”라며 “미국은 말로만 공평한 경쟁을 말하고 실제로는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을 산업망의 하단에 묶어두길 원하는데 이런 방법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비판

출처: 연합뉴스(22.9.13), 한국경제(22.9.13)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노동, EU】 EU 「강제노동 금지법」 추진

- EU 집행위원회는 14일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수출과 국내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강제노동 금지법' 추진 계획 발표. 특정 지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을 겨냥했다는 평가
 - 지난 6월 EU 의회는 중국 신장 지역 인권과 관련된 우려를 강조하며 관련 법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지난 6월부터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라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의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
- 강제노동의 범위는 원재료 채굴과 상품 제조, 유통 등 모든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최종 생산이 되었어도 중간단계에 강제노동이 투입되었다고 확인되면 판매할 수 없게 됨. 입법을 거쳐 실제 발효되는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
 - 미국에서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은 강제노동이 투입되었다고 추정하며, 수입업체가 강제노동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
 - 반면, EU는 특정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수입국이 강제노동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EU에서 최종 생산한 제품이라도 중간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되었다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차이
- 중국은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의 75%, 글로벌 폴리실리콘(태양광패널 소재) 생산의 80%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신장 지역은 세계적인 탄산리튬 주생산지이자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출처 : 한국경제(22.9.13), 머니투데이(22.9.15), 이데일리(22.9.17) 등 언론보도 종합

● 【중요물자, 일본】 日, 반도체·희토류 등 중요물자 공급망 대대적 조사

- 9.12일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반도체·희토류 등 국민생활에 중요한 물자 공급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방침 제시
 - ▲국민생존에 필수적, ▲공급이 특정국에 치우쳐 과도한 외부 의존, ▲수출중단 등 공급단절 개연성, ▲공급 단절 실적 등 특히 대응이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 중요물자'를 연내 지정할 방침
 - 조사 항목으로는 ▲원자재의 조달량이나 조달원, 해외 의존도 ▲국내용 공급량이나 수출량, 주요 공급처 ▲국내·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 ▲긴급 대체 조달 가능성 등 6가지 항목 제시

-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금년 5월 제정된 '경제안보추진법'을 근거로 국가의 사업자 등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 정부는 각종 통계 등을 토대로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물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단체에 관련 내용 보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조사 대상자나 구체적 내용은 각 물자를 소관하는 장관이 판단)
 - 공급망 구축은 기업 기밀성이 높은 중요 전략이므로 정부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며, 정부의 답변 요청에 대한 최종 협력 여부는 각 사업자가 판단
 - 최근 5년간 현황 및 전망을 조사해 중요물자별 공급망 전체 상황을 정리한 '공급체인망' 작성 예정. 특정 중요물자 취급 기업은 소관 부처에 공급이나 관리계획 제출 후 인정되면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음

출처 : 일본경제신문(22.9.13), 마이니치신문(22.9.13), 뉴시스(22.9.14) 등 언론보도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 【무역, 독일·중국】 독일, 중국 거냥한 새로운 무역정책 추진

- 독일은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원자재·배터리·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의 새로운 무역정책을 추진 중. 유럽 기반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9.13일 인터뷰에서 “중국이 환영받는 무역 상대이긴 하지만 독일은 경쟁을 저해하는 중국의 보호주의를 허용할 수 없고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 때문에 인권침해 비판을 자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중국은 지난 6년간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양국 무역 규모는 '21년 기준 2,450억 유로(약 341조 원)
- 이는 독일 중도우파 정부가 물러나고 중도우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온 것으로, 앙겔라 메르켈 정권과 달리 올라프 숄츠 정권은 중국에 더 강경한 성향을 보이며 對中 의존도에 큰 우려를 품고 있는 상황
 - 하베크 장관은 중국 국영 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COSCO)의 독일 함부르크항 기반의 컨테이너 운영사 지분취득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며, 기술뿐 아니라 물류 등 산업에 대한 중국의 권익 확보까지도 우려

출처 : 로이터(22.9.13), 디지털타임스(22.9.14) 등 언론보도 KOTRA 함부르크무역관 종합

● 【가스, 러시아·중국】 러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 중국석유공사와 루블·위안화 결제 합의

- 러 천연가스 수출을 독점하는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9.6일 시베리아 송유관으로 알려진 동부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중국석유공사(CNPC)와 루블-위안 혼합결제 방식을 합의했다고 발표
 - 로이터 통신은 금번 계약은 러·우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고자 달러·유로화 의존도를 줄이고 루블화 가치를 높이려는 러시아의 계획으로, 이로 인해 계약이 단순해지고 양국에 쌍방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
 - '14년 양사는 연 380억㎥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30년 동안 중국에 공급하는 4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했으며, 시베리아-중국 간 2,000km 이상의 가스관을 건설해 '19.12월부터 중국에 가스 공급 시작
- 중국 세관에 따르면 '22.1~7월 중국은 총 276만 톤의 러시아산 LNG를 구입함. 이는 수입량 기준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이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무려 161% 급등한 것
- 러-우 전쟁으로 서방이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러시아를 배제하여 러시아로선 달러-유로 결제 탈피 필요성이 커졌으며, 중국 역시 대만 침공 관측이 유력하게 제시되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지속해 온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 강화 시도의 일환으로도 판단됨
 - 다만, 중국은 불필요한 대립으로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될 경우의 금융 혼란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임

출처: 연합뉴스(22.9.7), 뉴스원(22.9.8) 등 언론보도 KOTRA 모스크바무역관 종합

● **【신재생에너지, EU】 유럽의회, '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45%로 상향**

- 유럽의회는 14일(수) 본회의 표결을 통해 '30년 EU 에너지 믹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45%로 상향하는 관련 지침 개정(안) 채택
 - 신재생에너지 비중 45% 목표는 지난 6월 EU 이사회가 승인한 40%보다 5%p 높은 것으로 향후 EU 이사회와 기관 간 협상을 통해 연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
- 이번 표결은 작년 채택된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EU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5% 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임
- 목표 달성을 위해 EU 각 회원국은 최소 2개 이상의 회원국이 협력하는 전력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며, 연간 전력 수요가 100TWh 이상인 회원국의 경우 3개 이상의 전력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출처 : 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9.15)

● **【에너지, EU】 EU, 에너지기업으로부터 횡재세 195조원 거둬 러시아發 에너지 위기 대응**

- EU가 러·우 전쟁 이후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에너지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는 판단하에 천연가스 외 태양광이나 풍력, 원자력, 석탄을 활용하는 발전업체들에 1,400억 유로(약 195조 원)에 이르는 '횡재세(초과 이윤세)'를 거두는 법안 추진 중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14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전쟁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회원국의 타격을 완화하고 이익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1,400억 유로 이상을 거둘 것이라고 밝힘
- 전력가격은 가장 높은 비용의 에너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가스나 상관없는 발전업체들이 다른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해도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발전업체의 초과이익 일부를 횡재세로 회수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
 - 현재 러시아產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차질에 따른 세계적 도매가 상승과 연동되어 EU 전력가격이 급등한 상태
- 횡재세 부과 여부는 27개 회원국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며 EU 집행위는 9.30일 에너지장관 특별회의에서 합의하는 것이 목표
 - 180유로/MWh를 수익 기준선으로 정하고 초과이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방침. 가스와 석유기업들 또한 올해 이익이 지난 3년간 평균이익 대비 20% 이상일 경우 잉여이익의 33%를 세금으로 징수할 전망

출처: 세계일보(22.9.15), SBS뉴스(22.9.15)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 **【광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23년부터 보크사이트 수출금지 예정**

- 인도네시아는 19.9억 톤 규모(21년 기준 세계 6위)의 보크사이트 광석이 매장된 국가로, 오는 '23년 6월부터 보크사이트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힘
 -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의 원재료가 되는 광물자원임
-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수출통제 조치로 항공·방산·전자·자동차·건설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제 원자재 시장에 파장 예상
 - 인도네시아는 현재 니켈 원광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향후 보크사이트 외에도 구리, 주석 등 각종 광물 원자재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 시행을 예고하고 있음

출처 : 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22.9.15)



GVC 뉴스 더하기 ① : 美 '바이오 제조혁신 이니셔티브'로 자국 공급망 강화

◆ 美 바이든 대통령은 9.12일 '첨단 바이오 기술 및 제조 혁신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향후 10년 내 3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 대비하여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美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 추진 배경 및 목표

- 바이든 대통령이 9.12일 서명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NBBI ; 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행정명령은 미국 바이오산업 관련 국내 생산 지원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으로, 광범위한 신규 투자를 통해 **자국 공급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
 - 그간 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로 인해 화학 및 원료 의약품의 높은 수입의존도와 바이오 제조역량 열위가 문제로 지적되어 온 상황
-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미국 바이오경제'를 만드는 것이 정책 목표로, 이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바이오 연료와 바이오에너지 산업 등 포괄적 의미에서의 기술 및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 표명임

● 주요 내용

- 백악관은 금번 행정명령을 통해 총 9가지 분야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 제시

〈주요 육성 정책〉

정책	상세 내용
미국 내 바이오 제조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 제조를 위한 국가기반시설 구축 및 활성화. 국내 인프라 부족으로 해외에서 제조하는 미국 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지역 혁신 및 강화된 바이오 교육에 대한 투자 포함 • 국내 연료, 화학물질 및 재료 생산 공급망 강화
바이오 기반 제품 시장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기관의 바이오 기반 제품 의무 구매량 상향조정 • 바이오 기반 제품 품질 격차에 대해 산업계에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여 신시장 창출 장려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혁신, 기후변화, 식품·농업혁신 등 관련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 부문을 연방기관 R&D 우선순위로 검토·지원
바이오산업 관련 정부 데이터 축적 및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공학 개발자가 긴급한 사회·글로벌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도록 생물학적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간소화
인재육성 및 교육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분야에서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하고 숙련된 인력 양성
바이오 기술·제품 관련 규제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공학 제품 개발·혁신 규제의 명확성·효율성을 강화해 제품의 조속한 시장 출시 장려
생물보안 및 생물안전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용 생물안전 연구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 • 생명공학 연구·개발로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위험을 감소시켜 생물보안 혁신 장려
미국 생명공학 생태계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학적 데이터 관련 정보보호 표준과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여 미국 생명공학 생태계 보호 • 바이오 소프트웨어 표준을 개발하여 바이오 제조 공급망에 대한 외부 위험 완화
우방·파트너국과 연대 강화를 통해 바이오산업 부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글로벌 바이오경제를 구축하여 생명공학 제품 개발·사용이 윤리·가치에 부합하도록 추진 • 기후변화에서 의료 안보까지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며 생명공학 혁신 실현

* 출처 : 백악관 Fact Sheet(9.12일)

- 美 국방부, 에너지부, 농무부, 보건부 등은 2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 추진 예정

부처	분야별 주요 투자 전망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5년간 바이오산업의 국내 제조기반 구축 약 10억 달러 • 시설에 대한 보안태세 개선 2억 달러 • 연료, 고분자 및 합성수지, 보호재 등에 필요한 바이오소재 고도화 지원 2억 7천만 달러
에너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공학 분야 혁신, 연구 발전 1억 7,800만 달러 • 바이오매스와 폐기물로 연료, 화학물, 소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구개발, 상업화 등 1억 6,000만 달러
농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비료생산 지원 5억 달러
보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의약품 생산과 전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원료 생산 4,000만 달러

* 출처 : 백악관 Fact Sheet (9.14일)

GVC 뉴스 더하기 ②: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 코로나팬데믹, 美-中 경쟁, 러-우 사태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응하여 국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약칭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발의(22.9)되었다.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 추진 배경

- 최근 △코로나 팬데믹, △지정학적 리스크(美-中 경쟁, 러-우 사태)와 △구조적 변화(탄소중립, 디지털化)가 중첩되는 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안정적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 증대**
- '공급망'은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형성되나 공급망 교란이 국가안보·경제에 위협이 되는 등 정부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법 체계 정비 필요**

● 주요 내용

◆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재정·세제·규제특례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재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수입선 다변화·민간비축 등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공급망센터 지정 등 초기 정보분석 기능 보강

* 법률 명칭 변경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

①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

-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관련 기본방향을 심의하고 ①**업종별 생산·투자 영향**, ②**특정국 수입의존도**, ③**전략적·안보적 중요성**, ④**전 세계 수급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품목 지정

② 공급망 재편 대응역량 강화 지원

- 산업부장관이 선정한 국내 생산시설 신·증설 등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품 개발 및 리사이클링 등 **소부장 R&D 지원 근거 신설**

- 환경·입지·예비타당성조사 등 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 핵심전략기술 외 **공급망안정품목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및 정부 화신의무 등 **규제개선 절차 적용대상을 공급망안정사업 참여기업으로 확대**

* [화평법/화관법/산안법] 화학물질취급시설 관련 △장외영향평가서, △등록면제확인, △공정안전보고서 등에 대한 조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과기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최대한 단축 처리

③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강화

- (수입선다변화) 주요 업종별·품목별 공급망 협의체를 운영하고, 해외수입선 정보제공, 국내 샘플도입 및 성능검증 실증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선 다변화 및 유사시 즉시 수입 여건 조성
- (민간비축) 산업부장관이 민간에 **공급망안정품목 보유재고를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공급망 안정품목 재고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 보관비용 및 보관시설 신·증설 비용 등 지원 근거 마련**
- (해외M&A) 공급망 안정화 목적의 소부장 M&A를 대상으로 **정보제공·컨설팅·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지원을 받은 M&A 기업을 대상으로 **위기시 해외생산 품목의 국내반입 명령 근거 마련**

④ 소부장 공급망 정보분석 강화

- 공급망 분석,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할 **소부장 공급망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EWS 운영을 위해 기업·정부를 대상으로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정보를 조사**할 수 있게 함

● 기대 효과

- 대외發 공급망 단절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GVC 뉴스 더하기 ③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요약)

- ◆ 정부는 9.20일 원자력 발전(△핵심기술 연구개발, △신규건설, △계속운전)을 포함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였음. K택소노미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알림·홍보' → '보도·설명' 항목에서 확인 가능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 개요

- (개념)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분류체계
 -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강
- (구성) 2개 부문(녹색 + 전환), 69개 경제활동(= 녹색부문 64개 + 전환부문 5개)
 - (녹색부문)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경제활동
 - (전환부문)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

● 주요 개정 내용

- 원자력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은 '45년까지 전환부문에 추가
 -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 원전의 역할 재조명, 러·우 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 증대 → EU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 포함(22.7.11)

부문	활동명	인정기한	인정기준
녹색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	-
전환	원전 신규건설	204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 최신 기술 기준 적용 • 온실가스 100g CO₂eq./kWh 이내 배출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 비용 보유
	원전 계속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 온실가스 100g CO₂eq./kWh 이내 배출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 비용 보유

* 현재 상용 중인 핵연료보다 성능이 향상되거나 유지되면서, 능동적 노심 냉각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핵연료의 건전성을 장시간(약 50분 추가) 유지할 수 있는 핵연료

● K택소노미 추진 일정

- 향후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10.6일 공청회 개최 예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

GVC 기초 상식 :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지원제도

◆ 최근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미래 新산업 부상 등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주력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있다. 미래 산업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 사업재편 지원제도란?

- (추진 목적)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 최소화

〈사업재편 사례〉

㈜해민중공업 (19년 사업재편 승인)	㈜이씨스 (22년 사업재편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친환경·고부가가치 新사업 분야 개척 · (사업재편) 선박 수리 → 알루미늄선박·해양구조물 제조 진출 · (기대효과) 108억원 투자, 매출 2배 증가(18. 30억 → 21. 72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세계시장을 겨냥해 자율차 통신분야 진출 확대 · (사업재편) 내연차 전장부품 → 자율차 통신융합모델 신규 진출 · (기대효과) 382억원 투자, 92명 신규고용, 자율차 생태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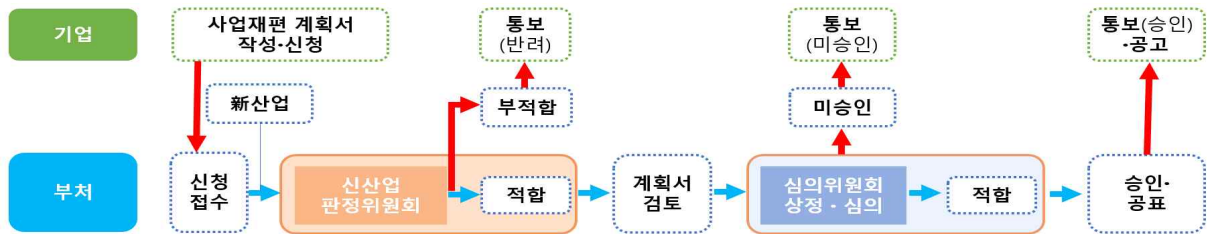
- (주요 성과) '16년 제도시행 이후 총 314개社(합산 자산 162조원, 매출 116조원, 고용 13만명) 사업재편 승인

* 연도별 승인기업 수(개, 누계) : (16) 15 → (17) 66 → (18) 100 → (19) 109 → (20) 166 → (21) 274 → (22) 314

** 업종별 승인기업 비중(%) : (자동차부품) 25 (조선) 13 (기계) 13 (전기전자) 8 (석유화학) 6 (철강) 6 (디스플레이) 4 (SW) 4

● 사업재편 승인 절차 ※ 신청 접수처 : 대한상공회의소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Tel. 02-6050-3163, 3836)

- 승인 유형 : ①과잉공급 완화, ②신산업 진출, ③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 승인 요건 : 사업재편(구조변경·사업혁신*) 계획 + 달성목표(생산성·매출액 향상 등)
- * [구조변경] 합병·분할, 주식자산·영업 양수도, 회사 설립 등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판매 효율화 등



● 주요 지원 내용

-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 「공정거래법」에 따른 △절차 간소화 및 △규제유예, △금융·세제, △R&D·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센티브 집중 지원

〈사업재편 승인기업 주요 지원 내용〉

「상법」 절차간소화	「공정거래법」 규제유예	금융·세제	R&D·컨설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분할 절차 완화, 주주총회 소집기간 단축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지분 규제 유예기간 연장 · 상호·순환출자·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기·은 기본·신보 용자·보증 금리·요율 우대 등 ·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자본금 증가시 등록면허세 감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사업 진출기업 R&D 지원 · 정부 R&D사업 우대 및 한도 상향, 기술료 납부유예 등 · 컨설팅·고용안정 지원 등

● 향후 추진 방향

- (범위 확대) 기존 과잉공급 업종과 하이테크 新산업 등 소수 업종 지원 중심에서 소재·부품·장비 등 업종을 지탱하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확대
- (지원 강화) 사업재편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특례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지원 강화 추진
- (성과 확산) 업종별·지역별·직급별 사업재편 모임을 활성화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의 위기극복 성공 사례·노하우 공유 확산 및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나누는 場 마련



GVC 돋보기 : 주요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례 (EU, 미국 편)

◆ 최근 환경·경제·공급망 3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세계 주요국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리즈의 첫 번째로 미국과 EU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정책 동향과 주요기업 사례를 살펴보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례〉

28호: EU, 미국
29호: 중국, 일본
30호: 우리나라

EU

● 주요 정책

◆ EU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탈탄소 에너지전환과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글로벌 규제·표준 선점을 위해 적극 노력중

- EU는 '새로운 배터리 규제(New Batteries Regulation)'를 통해 재활용·재사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 준비 중
 - EU 배터리 규제에 따라 2030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제조시 '재활용 원료 의무사용 비율'을 충족해야 함에 따라 세계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 또한, EU는 '전기차 배터리의 수주기 정보를 추적·관리하여 공급망 이해당사자들간에 공유하는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주요 기업 사례

① 유미코어(Umicore, 벨기에) <https://www.umicore.com>

◆ 기업 개요

- 벨기에 2차전지 양극재 생산 및 재활용 기술 기업

◆ 최근 동향

- 폐배터리에서 원재료를 회수·재활용하는 '폐쇄 루프 비즈니스 모델' 보유
- 폐배터리에서 코발트, 니켈, 구리 등을 추출하는 기술 95% 회수율 도달
- 프랑스 Automotive Cells Company사와 배터리 재활용 파일럿플랜트 건설계약 체결



② 노스보트(Northvolt, 스웨덴) <https://northvolt.com>

◆ 기업 개요

- 폭스바겐, BMW, 볼보, 폴스타 등과 대규모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한 스웨덴 배터리 생산기업

◆ 최근 동향

- 배터리 셀 생산뿐 아니라 원재료 재활용 사업 진출을 위해 노르웨이 알루미늄 회사 Norsk Hydro와 합작해 Hydro Volt를 설립하고 공장 가동 개시



③ 프리모비우스(Primobius, 독일) <https://www.primobius.com>

◆ 기업 개요

- 호주의 네오메탈스(Neometals)와 독일의 SMS그룹이 설립한 합작회사

◆ 최근 동향

- 폐배터리 셀을 재활용하기 위해 연간 2만톤의 처리용량을 갖춘 공장 설립
- 벤츠의 자회사 리클라(Liclar)는 쿠펜하임 재활용공장 건립을 위해 프리모비우스와 협력



미국

● 주요 정책

◆ **그간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자국 생산이 미흡하여 공급망 차원에서 미국 내 '전기차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적극 육성**

-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에 2,050만 달러(19~), 전기차 배터리 2차 사용 및 재활용에 6천만 달러(22~) 지원 결정
- 최근 IRA(Inflation Reduction Act) 제정으로 美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관련 기업은 원재료·부품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함**에 따라,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① **얼티엄셀즈(Ultium Cells) <https://www.ultiumcell.com>**

◆ 기업 개요

- GM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셀 합작법인

◆ 최근 동향

- 배터리 셀 제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 100%까지 재활용하기 위해 북미 최대의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Li-Cycle과 협력하고 총 600억 원 규모의 지분투자
- 이를 통해 셀 제조과정 중 발생하는 폐배터리의 코발트, 니켈, 리튬, 흑연, 구리, 망간, 알루미늄 등 다양한 배터리 원재료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됨


② **테슬라(Tesla) <https://www.tesla.com>**

◆ 기업 개요

-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성 및 저장시스템을 설계·개발, 제조, 판매·임대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 최근 동향

- 테슬라 2021 임팩트 리포트에서 앞으로 테슬라는 모든 공장에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힘
- 네바다 공장(Nevada plant)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구축했으며 상하이에도 재활용 시설을 갖춘 공장 건설 고려 중



◆ 기타 사항

- 전기모터 및 기타 중요한 부품들도 동 社의 재활용 사업 대상임

③ **레드우드 머티리얼(Redwood Materials) <https://www.redwoodmaterials.com>**

◆ 기업 개요

- 테슬라 JB 스트라우벨 전 회장이 2017년에 설립한 재활용 스타트업

◆ 최근 동향

- 닛산이 Envision그룹에 매각한 배터리 생산기업 Envision AESC(테네시주 스미르나)와 협력해 이곳에서 나온 셀을 재활용할 계획
- 포드와 협력하여 배터리 재활용 프로세스 개발, 포드는 레드우드에게 5천만 달러 투자 계획





GVC 전문가 : 美 「CHIPs Act」 주요 내용과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 - 미국반도체산업협회 John Neuffer 회장 인터뷰

◆ 8월말 KOTRA 워싱턴무역관 관계자 및 주요 언론 현지 특파원단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美 반도체 업계를 대변하는 반도체산업협회 John Neuffer 회장 인터뷰를 공동 진행했음. 美 업계에서 바라본 「CHIPs Act」의 주요 내용과 한-미 반도체 협력의 미래 등에 대해 살펴보자

● 「CHIPs Act」가 반도체 산업계에 미칠 영향

Q : 현재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중점 육성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며, 목표 달성에 있어 「CHIPs Act」는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A : 1990년 미국은 세계 반도체의 약 37%를 생산했지만, 지금은 12%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비용이 他 국가 대비 약 25~50% 높은 것이 이유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전략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 반면, 미국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CHIPs Act」를 통해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연구 투자 자금을 배정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업의 미국 이전(온쇼어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반도체 공급망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인터뷰 현장 사진 〉



Q : 「CHIPs Act」로 미국 내 반도체 공장들이 지원을 받으며 기술개발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A : 미국은 로직칩, 설계, 장비 경쟁력이 매우 강하고, 한국은 메모리 분야 강자입니다. 이미 보완적인 관계이지만 「CHIPs Act」를 통해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원-원 구조를 기대합니다. 또한 규정하기는 쉽지 않은 개념이지만 프렌드쇼어링을 기반으로 「CHIPs Act」가 유사 입장국간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을 장려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뿐 아니라 유럽, 일본, 대만기업의 추가적인 미국 투자도 이뤄질 예정이며, 유사 입장국이 협력한다는 점에서 우리 공급망 강화의 장래는 밝습니다.

● 중국과의 관계

Q : 아시다시피 미-중 관계는 경제, 국제관계, 국제 리더십 등 여러 면에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해당 지원을 받았을 때 중국 등 우려 국가들과의 거래가 제한되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 대부분 예상했겠지만 의회가 해당 법안에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의회는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특히, 가드레일은 기술 정책에 관한 중국의 위협이 정치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한편, 특정한 제한이 있다는 측면 자체를 고려하여 미국 상무부와 정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이기에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조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Q : 관련하여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인 중국 진출을 제한해도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A : 미국 기업의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약 35%인데 해당 매출이 대규모 연구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미국 반도체산업은 매출의 약 20%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데, 중국과 같은 주요 시장에 대한 접근이 감소하면 연구개발에 투자할 자금도 감소하고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기에 절묘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EU의 정책입안자들이 對中 정책 수립시 특히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 반도체 정책뿐 아니라 중국과 관련해서도 한-미간 긴밀하고 신중하게 협력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주요 권역 및 국가의 보조금 경쟁**

Q : 주요 권역·국가가 대내 투자를 장려하는데 국가간 보조금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시는지요?

A : 이미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보조금 경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만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 것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보조금으로 다양한 제조업을 유치한 다른 국가들이 저 멀리 앞서 나가는 와중에 미국의 제조업은 무너져갔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야 보조금 경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다행히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Q : 국가들이 보조금 정책을 조율하는 게 가능할까요?

A : 그러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깊이 있게 조율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지만, 최소한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 **그 외 반도체 산업 현안**

Q : 가까운 미래에 미국 반도체설계 기업(팹리스)의 한국 투자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A : 이미 미국 설계회사들이 한국에 판매사무소와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21년 발표한 K-반도체벨트 전략과 7월에 공개한 국가반도체전략 로드맵을 주목합니다. 한국의 반도체전략도 美 「CHIPS Act」처럼 모든 혁신적인 기업에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를 바라며, 한국 정부의 반도체산업 인센티브가 일정 수준 상호호혜적이기를 바랍니다.

Q :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등 반도체 주요국 4개국 참여하는 '칩4 회의'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A : 4개국 간에는 협력할 영역이 확실히 존재해 칩4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중 하나는 물론 공급망 회복력으로 이미 양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4개국 간에도 협력을 강화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유무역입니다. 4개국이 WTO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이를 통해 '15년에 마지막으로 확대한 WTO 정보기술협정(ITA)을 다시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국가의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이 최대한 서로 중복되지 않고 가능한 한 시장원칙에 기반을 두기를 바랍니다. 반도체산업의 근간인 지식재산권(IP) 이행과 보호도 협력이 더욱 필요한 분야입니다. 인력개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는 인재가 부족하며 미국의 이민정책은 외국 인재가 미국에서 교육을 마친 뒤 잔류하기 어렵게 하는 상황입니다.

Q : 향후 반도체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A : 최근 PC, 가전제품용 반도체 수요가 감소했지만 자동차, AI,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수요는 견조합니다. 단기적으로 일부 분야는 수요가 감소하고 일부는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인 수요 전망은 매우 낙관적입니다. '22년 수요는 5천 600억 달러를 전망하는데 '30년 1조 달러를 전망하는 분석가들도 존재합니다.



더 알아보기 -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각료선언문 中 공급망 관련 사항

◆ 한국, 미국 등 14개 IPEF 참여국들은 9.8(목)~9(금)일 미국 LA에서 개최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를 통해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①무역, ②공급망, ③청정경제, ④공정경제 등 4개 필라(Pillar) 각료선언문에 합의하였음. 각료선언문 中 공급망 필라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보도자료' 항목에서 확인 가능

● 「IPEF 장관회의」 개요

- (일시/장소) '22.9.8(목)~9(금), 미국 로스앤젤레스(LA)
 - (참여국)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니, 말련,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안덕근) 등 14개국 장관(급)
 - (의제) △IPEF 협상개시 선언, △4대 필라*(①무역, ②공급망, ③청정경제, ④공정경제) 의견교환, △향후계획 등
- * 필라①은 인도를 제외한 13개국 참여, 필라②~④는 14개국 모두 참여

● IPEF 각료선언문 '②공급망 필라' 주요 내용

- 역내국간 모든 공급망 협력 과정은 기업기밀을 보호하고 시장교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원칙을 준수하며 추진하기로 하고, 크게 4가지 관점에서 각료선언문에 합의
-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강화 및 △인력 개발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

① 위기대응 메커니즘 마련 ⇨ 공급망 교란상황 파악 및 대응방안 공조를 통해 역내 공급망 안정화

- 정부간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조치 공조체계 구축
-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

②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핵심분야 투자 확대 ⇨ 우리기업 해외진출 기회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

- 수급 다변화
- 인프라 확충
- 제조·생산 현대화
- 기술 협력

③ 역내 공급망 물류 원활화를 위한 공조 강화 ⇨ 공급망 교란 요인 방지를 통해 공급망 불안 최소화

- 원활한 국경·운송 연결 유지
- 역내 물류 인프라 확충
- 공급망 병목 해결 방안 마련

④ 기타 공급망 관련 협의 ⇨ 역내 공급망 전문인력 양성 및 인권 증진에 기여

- 역내 인력 육성을 위한 훈련·역량개발 투자
-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투명성 제고 노력
- 공급망 內 노동권 증진 노력

⇨ IPEF 공급망 필러에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미국·일본 등 기술보유국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바,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핵심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 정부는 금번 각료선언문을 바탕으로 4대 분야 협상에 참여하여 우리의 이해를 적극 반영하고 구체적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청정 에너지 분야 등 국가간 협력사업도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
-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뿐 아니라 농림부, 해수부, 과기부,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 등 20개 이상의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팀(One-team)으로 긴밀히 협력

GVC 소식통 ①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사업 및 세미나 안내

● IPEF 국제심포지엄: IPEF 협상개시 선언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 IPEF 각료선언문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필러별로 살펴봄

- 일시 : 10월 6일(목) 14:00~16:30
-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E5
- 참가신청 :
IPEF 국제심포지엄(클릭) 하단의 '사업참가 신청하기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제출 (kita.net 아이디 필요)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 02-6000-5617 / jeff@kita.or.kr

시간	주요 내용	발표자
14:00~14:10	개회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축사	김홍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환영사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기조연설		
14:10~14:30	기조연설 1	Adam Posen PIIE 소장
	기조연설 2	Deborah Elms Asia Trade Centre 대표
주제발표		
14:30~15:10	필러1. 무역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
	필러2. 공급망	산업연구원
	필러3. 청정경제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팀장
	필러4. 공정경제	강준하 홍익대학교 교수
15:10~15:50	종합토론	
15:50~16:30	Q&A	

●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박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 (사업내용) 선복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기 확보한 정기선복의 일부를 국내 중소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부산항 / 도착: 하단 참조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복(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퍽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날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뭄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삼성 SDS	서남아	8	나바세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안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링, 하이퐁(추가)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 또는 [삼성SDS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한국무역협회 기업 물류 지원사업〉

기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해상운송]																		
 (포스코)	벌크화물 수출 회원사	[중소기업 벌크화물 합적·운송] • 지원 대상: 벌크화물 수출 중소기업(철강제품) or 포워더 • 가능품목: 코일·판재류·선재 등 (이외 품목은 추가 확인 필요)	포스코수출물류합적플랫폼 (www.steel-n.com) 사업안내 바로가기 ① 플랫폼 회원가입 ② 가입승인(포스코) ③ 합적 신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출항지</th> <th>도착지</th> </tr> <tr> <td>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td> <td>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td> </tr> </table> • 내륙운임: 수출기업 부담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현대글로벌비스)	Breakbulk화물 수출 회원사	[자동차운반선(RORO) 활용 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 • 지원 대상: Breakbulk 화물 수출 중소기업 or 포워더	신청서 작성/제출 (logistics01@kita.or.kr) 사업안내 바로가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출항지</th> <th>도착지</th> </tr> <tr> <td>광양항, 마산항, 평택항</td> <td>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td> </tr> </table> ※ 운송신청 화물에 대한 현대글로벌비스의 추가 확인 후 합적·운송 실시 ※ 신청 화물에 대한 선적 확정 시, 출항·선적일정 개별 공지		출항지	도착지	광양항, 마산항, 평택항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출항지	도착지																	
광양항, 마산항, 평택항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항공운송]																		
 (대한항공)	항공화물 수출 회원사	[중소 수출기업 전용 스페이스 제공] • 지원 대상: 수출 중소제조업체 (포워더 신청불가) • 가능 품목: 일반 화물 (특수화물 불가)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사업안내 바로가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노선</th> <th>출항일</th> <th>예약 마감</th> <th>서류/화물 (입고)마감</th> </tr> <tr> <td rowspan="2">인천 → 로스앤젤레스</td> <td>수요일</td> <td>월요일 12:00</td> <td>화요일 12:00 이전</td> </tr> <tr> <td>일요일</td> <td>목요일 12:00</td> <td>금요일 12:00 이전</td> </tr> </table>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복합운송]																		
 (LX판토스)	컨테이너 화물 수출 회원사	[유럽·러시아항 해상·철도 복합운송 선복지원 및 운임할인] • 9월 러시아항 추가 운임 할인 • 지원 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더 신청불가) • 가능 품목: 20피트·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LCL 불가) ※ 단, TCR 노선은 40피트 컨테이너만 가능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사업안내 바로가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3">해상+철도 복합운송</th> <th>내륙운송</th> </tr> <tr> <th>노선</th> <th>출발지</th> <th>도착지</th> <th>최종도착지</th> </tr> <tr> <td rowspan="2">TCR</td> <td rowspan="2">인천/평택</td> <td>폴란드 말라세비치</td> <td rowspan="2">유럽 전역</td> </tr> <tr> <td>러시아 모스크바</td> <td>모스크바 인근</td> </tr> <tr> <td>TSR</td> <td>부산</td> <td>폴란드 말라세비치</td> <td></td> </tr> </table>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러시아 모스크바	모스크바 인근	TSR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러시아 모스크바		모스크바 인근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물류 보관]																		
 (칼트로지스)	컨테이너 화물 물류센터 보관 희망 기업	[부산신항 물류센터 보관장소 제공 및 요금 할인]	신청서 작성/제출 (hjo117@kita.net) 사업안내 바로가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th> <th>서비스 내용</th> <th>여부</th> <th>비고</th> </tr> <tr> <td>1</td> <td>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td> <td>불포함</td> <td>수출업체가 포워더/ 운송사 통해 직접수배</td> </tr> <tr> <td>2</td> <td>물류센터 상하차</td> <td rowspan="2">포함</td> <td rowspan="2">시장가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td> </tr> <tr> <td>3</td> <td>물류센터 보관</td> </tr> <tr> <td>4</td> <td>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td> <td></td> <td></td> </tr> </table> ※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대상 (특수 컨테이너 문의 필요) ※ 장기보관 희망 시, 보관일 관련 사전 협의 필요			서비스 내용	여부	비고	1	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더/ 운송사 통해 직접수배	2	물류센터 상하차	포함	시장가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	3	물류센터 보관	4
	서비스 내용	여부	비고															
1	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더/ 운송사 통해 직접수배															
2	물류센터 상하차	포함	시장가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															
3	물류센터 보관																	
4	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해상화물) ☎ 02-6000-7617/5754 / logistics01@kita.or.kr
 (항공화물) ☎ 02-6000-5754 / hjo117@kita.net



GVC 소식통 ② : 공급망 현안 품목 해외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공고 - 칠레 리튬 활용 부가가치 제품생산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칠레 내 리튬 부가가치제품 생산 활성화, 투자 강화를 통해 부가가치제품 생산과 개발을 위한 칠레 산업역량을 강화하고, 비금속 광물에 대한 기술개발과 활용 증대
- (사업내용) 칠레 Corfo(생산진흥청[발주처])가 자사 소유의 광산을 양허하여 SQM社가 생산하는 리튬을 사업자에게 우대가격으로 공급, 칠레 내에서 전구체, 양극재, 음극재, 금속리튬, 리튬بات데리부품 등 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고자 함
* 칠레의 리튬(탄산리튬, 수산화리튬) 수출액은 '21년 기준 9.8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 물량의 33%를 차지
- (선정시 혜택) SQM社가 생산하는 리튬을 우대가격으로 공급받으며, 사업자는 SQM과 최대 '30년까지 리튬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
- (사업자의 의무) Corfo에 제출하여 선정된 투자 프로젝트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우대가격으로 공급받은 리튬은 사업계획서상 칠레 내 부가가치제품 생산에만 사용 가능, 상업화할 수 없음

● 우대가격 산출 구조 및 할당 물량

- (산출 구조) 우대가격은 탄산리튬(technical grade, battery grade), 수산화리튬(technical grade, battery grade)별로 매월 정해지며, SQM이 최근 6개월 동안 최저가격으로 수출한 리튬의 20%에 대해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산출(FOB 기준)
- (가격 조건) 우대가격은 '18년 당시 Corfo와 SQM이 체결한 양허계약에 따라 정하며 ①Spot price, ②Incoterm FCA, Salar de Carmen 플랜트, ③SQM의 standard packaging 등 3가지 요소 고려 * 계약조건을 달리할 경우, SQM과 사업자 간 협상을 통해 계약체결
- (물량) 할당 물량의 소진현황은 Corfo홈페이지(www.corfo.cl)에 수시 업데이트 예정

	총 할당 물량	1개의 사업자당 최대 할당 물량(30년까지)
탄산리튬	월별 1,875Mt (연간 22,500Mt)	월별 937Mt (연간 11,244Mt)
수산화리튬	월별 350Mt (연간 4,200Mt)	월별 350Mt (연간 4,200Mt)

* 각 사업자는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중 1개만 사용 가능(2종의 리튬 사용을 포함한 제안서는 수용하지 않음)

- (할당 물량 확대) Corfo가 연간 탄산리튬 15,975Mt, 수산화리튬 2,021Mt를 할당한 후에 각 사업자는 12개월마다 할당 물량을 최초 사업 시행 5년간 10%씩 확대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짐

● 참가 자격 및 신청 방법

- (참가자격) 칠레기업·외국기업 모두 참가 가능, 공동사업자 존재 시 사업자-공동사업자 간 투자 프로젝트 추진 상 상호보완성 등을 제안서에 명기해야 함. 또한 참가자별 1개의 프로젝트만 제출 가능
* 외국기업은 칠레 내 회사설립(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또는 칠레기업을 인수해야 함(지분 50% 이상)
- (신청기한) '23.8.31일 限 ※기한 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 할당 물량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lithiumproject@corfo.cl로 스페인어(필수)로 제안서, 카달로그 등 송부(용량 25MB 이하)
* 참가 문의 역시 스페인어로 송부 바람, 근무일 기준 10일 내 답변. Corfo는 접수된 질의 및 응답을 홈페이지에 게재 가능
- (참고사항) 제안서 개찰 정보는 Corfo홈페이지(www.corfo.cl) 및 칠레 일간지에 공고 예정
- (제안서 내용) ①제안 개요, ②참가자(기업) 정보, ③시장 경험 및 재정 능력, ④프로젝트 상세 등 자세한 양식 및 자료는 아래 문의처로 이메일 문의 바람
- (문의처) KOTRA 산티아고무역관 이견학 과장 ☎ (+56)-2-3221-0710 / rafaellee@kotra.or.kr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22.2.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심층 분석
 -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전파 및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 지원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
- ‘분석센터’는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산업분석실**(무역협회 담당), **공급망 모니터링실**(KOTRA 담당) 등 3개 실을 두고, 3개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22.3.21)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및 현장 중심의 공급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편 전(12)	개편 후(29)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3.3(목)부터 **매주 1회(목요일) 발간 중**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작성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9. 21. 수)

[환율]

	'20.12.31	'21.12.31	'22.8.31	'22.9.16	'22.9.19	'22.9.20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337.60	1,388.00	1,393.60	1,389.50	-0.29%	+16.88%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337.90	1,389.30	1,392.50	1,388.80	-0.27%	+16.71%
₩/CNY	166.04	186.51	194.16	199.92	198.58	198.33	-0.13%	+6.34%
₩/¥100	1,051.19	1,032.48	965.99	966.78	972.44	969.71	-0.28%	-6.08%
Y/U\$	103.34	115.14	138.47	143.57	143.31	143.29	-0.01%	+24.45%
U\$/EUR	1.2279	1.1318	1.0026	0.9983	0.9980	1.0033	+0.53%	-11.35%
CNY/U\$	6.5305	6.3681	6.8961	7.0111	7.0107	7.0110	0.00	+10.10%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9.19 (전일)	'22.9.20				
					전일(9.19)비	'21년최저비	'21년말비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90.36	92.59	▲2.2 +2.5%	▲42.5 +85.0%	▲15.5 +20.1%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97.70	96.65	▼1.1 -1.1%	▲9.4 +10.7%	▼24.1 -20.0%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7,772.00	7,796.00	▲24.0 +0.3%	▲40.5 +0.5%	▼1,896.0 -19.6%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232.00	2,245.50	▲13.5 +0.6%	▲294.0 +15.1%	▼560.5 -20.0%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4,610.00	24,750.00	▲140.0 +0.6%	▲8,843.0 +55.6%	▲3,825.0 +18.3%

[반도체]

	'20	'21	'22.6	'22.7	'22.8	9.15	9.16	9.19	9월(~19)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37	3.11	2.76	2.49	2.48	2.48	2.53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1.9%	+8.0%	-25.4%	-31.6%	-34.0%	-33.1%	-33.5%	-33.5%	-32.4%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8.01	6.83	6.57	6.57	6.57	6.57	6.57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7.0%	+32.8%	+23.0%	+1.4%	-4.2%	-5.5%	-5.5%	-5.5%	-5.4%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분	'21.12.31	'22.8.26	'22.9.2	'22.9.9	'22.9.16		
						전주(9.9)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3,154.26	2,847.62	2,562.12	2,312.65	-9.7%	-54.2%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분	'21.12.24	'22.7.29	'22.8.31	'22.9.14	'22.9.15	'22.9.16		
							전일(9.15)비	'21년말비
BDI	2,217	1,895	965	1,595	1,612	1,553	-3.7%	-30.0%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협력기관

